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영향요인 비교

이금재*, 이에리자**, 박연숙***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서일대학교 간호과**, 국립공주대학교 간호학과***

Comparison on Influencing Factors 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Keum Jae Lee*, Eliza Lee**, Yeon-Suk Park***
Dep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Dept. of Nursing, Seoil University**
Dep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S시의 일개 종합대학의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총 38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정도는 평균평점 4점 만점에 간호대학생 3.04점, 일반대학생 3.12점으로, 두 군 모두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대학생이 간호대학생보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대학생은 생명존중의식과 지각된 윤리가치관이 높을수록, 일반대학생은 생명존중의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자녀 중심적 의식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두 군 모두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생명존중의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과 과정에 윤리교과목의 학점 비중을 높이고 학점과 병행한 다양한 매체 활용 및 특강 등을 통해 윤리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존중의식, 지각된 윤리가치관, 성태도, 자녀관, 융합, 복합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and general students. Participants were 382 nursing and general students at a college in S city. Mean scor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range:1~4) in nursing students was 3.04 and general students, 3.12. Thus, mean scor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wo group were above the average and general students significantly higher than nursing students. Life-respect consciousness, perceived ethic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were shown as significant predictors 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life-respect consciousness, sexual attitude, value regarding child rearing in general students. The most influential predictor of two groups was life-respect consciousness. To establish desirable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hat subjects related to biomedical ethics should be mandatory, and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proportion of credit for the curriculum.

Key Words : Biomedical Ethics, Life-respect Consciousness, Perceived Ethical Values, Sexual Attitude, Value Regarding Child Rearing, Fusion, Compound

* 본 논문은 2016년 가천대학교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Gachon University in 2016.

Received 1 November 2016, Revised 2 December 2016

Accepted 20 December 2016, Published 28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Eliza Lee(Seoil University)

Email: elizalee@seoil.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생명의료윤리는 ‘생명윤리’와 ‘의료윤리’에서 파생된 신조어이다 [1].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의료인들은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상황에서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해 도덕적, 윤리학적 측면의 비판적 성찰과 충분한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2,3]. 의료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생명의료윤리의 범주는 (1) 태아성감별, 산전 진단, 인간복제, 응급피급, 인공임신중절 등의 생식 및 출생과 연관된 문제 (2) 임상실험, 장기이식, 유전자치료 등의 진료와 관련된 문제 (3) 안락사, 죽음의 기준(심폐사/뇌사논쟁),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 자살 도움 등 죽음의 과정과 연관된 문제 등이 포함된다 [4,5].

생명공학과 의학기술의 진보로 발생된 새로운 윤리적 이슈들에 관해 의학, 간호학, 생명공학, 철학, 법학, 신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생명의료윤리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대해 타당성과 부당성을 논하며 적절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난다. 이에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갈등 해소 방안으로 공리주의나 의무주의와 같은 전통적 연역주의적 접근법, 또는 자율성 존중, 악행 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원칙주의적 접근 등 다양한 해결점이 논의되어지고 있다 [5].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생명의료윤리 문제로 인해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간호사는 이러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간호 대상자가 최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올바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이 확립되어있어야 한다.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보수교육의 한 부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윤리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6]. 그러나 간호사의 바람직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은 미래의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윤리의식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

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생명의료기술을 규정하는 정 부차원의 법률 제정이 시작되고 이러한 움직임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의학, 간호학, 치의학 등의 분야의 학생들에게 생명의료윤리에 관해 교육하고 있으며 [7], 터키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윤리 교육을 위해 수업시간 중 토론, 강의, 사례연구, 소그룹 토의, 각색 및 시범(실연)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8]. 국내의 경우 간호대학에서 간호학 교육 목표와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2/3이상이 윤리 교과목을 개설하여 윤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이렇듯 간호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육의 양적인 측면은 확장되었지만 [6],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현재의 윤리교육이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9], 생명의료윤리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간호대학생(보건의료계열)의 비교연구 [10, 11], 의료계열 대학생 비교연구(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생) [12],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9, 13, 14] 등이며,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관한 국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 및 관련 요인으로 윤리적 가치관 [9, 11], 생명의료윤리 교육관련 사항 [9, 11, 14], 생명윤리관련 문제로 고민한 경험유무 [11] 및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15], 연령 [9], 종교 [10], 경제적 상태 [10]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생명존중의식 [16]은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17], 간호대학생과 관련된 정보가 없다. 한편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달라진 성개방화로 인해 전통적, 보수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개방적인 성문화로 혼전 성관계, 인공임신중절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결혼이후의 자녀관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성경험, 성지식, 성태도간의 관련성과 [13,14] 결혼관과 자녀관간의 관련성 [15]이 보고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성관련 문제 및 자녀관은 생명의료윤리의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된 탐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생명의료윤리의 범주 중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태아의 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및 신생아 생명권 등 생식 및 출생과 연관된 문제를 중심으로,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명존중의식, 지각된 윤리 가치관, 지각된 생명의료윤리지식, 성지식, 성태도, 자녀관과 관련된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바람직한 생명의료윤리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S시의 일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비교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다.
- 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존중의식, 지각된 윤리가치관, 지각된 생명의료윤리지식, 성지식, 성태도 및 자녀관 등의 정도를 비교한다.
- 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생명존중의식, 지각된 윤리가치관, 지각된 생명의료윤리지식, 성지식, 성태도 및 자녀관 간의 상관성을 확인한다.
- 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영향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의 종합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이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version3.1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요인의 수가 7개일 경우 유의수준(α) 0.05, 효과크기(f^2) 중간(0.15), 검정력 ($1-\beta$) 0.90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53명이었다. 이에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 산출에 근거하여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 편의 추출된 간호대학생 180명, 일반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시킨 표본수는 간호대학생 175명, 일반대학생 207명으로 총 382명이었다.

2.3 연구 도구

2.3.1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의료윤리의식이란, 건강과 관련된 상황과 생물학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사 결정의 도덕적 차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2],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에 관하여 윤리학적으로 심사숙고하는 인간의 활동 [3]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은 Lee [18] 가 인간의 개체발생의 출생과 연관된 윤리적 문제인 생식의 윤리문제를 중심으로 개발한 태아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생명권으로 구성된 총 29문항의 도구를 사전 조사에 의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총 21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찬성' 4점, '대체로 찬성' 3점, '대체로 반대' 2점, '반대'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21점에서 최고 84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Lee [18] 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0$ 이었다.

2.3.2 생명존중의식

생명존중의식이란,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대한 외경과 존엄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간 생명은 성별, 인종, 빈부, 학력, 나이, 장애, 범죄 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동등하다는 의식을 의미한다 [16]. 본 연구에서의 생명존중의식은 Lee, Kim, Ha, Oh와 Lee [16] 가 청소년들의 생명존중의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식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

지 않다'는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존중 의식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Lee, Kim, Ha, Oh와 Lee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66$, Nam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72$ 이었다.

2.3.3 지각된 윤리가치관

윤리 가치관이란, 인간의 행동 방향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와 해야 할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을 의미한다 [20].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윤리가치관은 Lee [18]가 1개 문항으로 개발한 '현재 귀하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확고함' 4점, '가끔 혼동됨' 3점, '상황에 따라 바뀐다' 2점,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윤리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4 지각된 생명의료윤리지식

생명의료윤리지식이란, 배아복제, 낙태, 대리모 등과 같은 출생과 관련된 문제, 중요한 진료의 중단이나 장기 이식등과 같은 진료와 연관된 문제와 죽음의 과정에 연관된 문제, 임상시험과 관련된 연구윤리 및 특정이익을 위한 진료 행위의 문제 등과 같은 생명의료윤리의 범주에 속하는 영역 [4]과 관련된 지식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생명의료윤리지식은 Choi [21]가 개발한 "귀하는 생명의료윤리,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뇌사 및 인간생명공학에 대한 생명의료윤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의 총 6문항을 채택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생명의료윤리지식을 평가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잘 알고 있다' 4점, '조금 알고 있다' 3점, '들어본 적 있다' 2점, '관심 없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6점에서 최고 24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생명의료윤리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5$ 이었다.

2.3.5 성지식

성지식이란 성에 대한 가치, 현상 및 남녀 간의 생리적 관습과 행동에 관한 사실, 개념, 정보, 관념에 관한 전반적 지식을 의미한다 [22]. 본 연구에서의 성지식은 Moon [23]이 개발한 도구를 Ho [24]가 수정 보완하여 구성된 38문항을 사전조사에 의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생식기 관련 6문항, 임신과 출산관련 3문항, 성건강 관련 9문항, 성행위 관련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표기하여 응답자의 정답만을 1점, 그 외 응답은 모두 0점으로 처리하여 성지식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9$ 이었다.

2.3.6 성태도

성태도는 성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체계화되고 일관된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25]. 본 연구에서의 성태도는 Heo [25]가 개발하고 Ho [24]가 수정 보완하여 구성된 총 42문항을 사전조사에 의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성에 대한 생각(쾌락적, 유희적인 성) 8문항, 혼전 순결 6문항, 결혼관 5문항, 동성애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12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낮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8$ 이었다.

2.3.7 자녀관

자녀관은 개인이 자녀에 대해 갖게 되는 생각으로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 효용 가치를 의미한다 [26]. 본 연구에서의 자녀관은 Park, Oh, Park과 Mun [27]이 미래 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들의 자녀에 대한 생각 10문항을 대학생의 자녀관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

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중심적 의식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5$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S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의 종합대학교의 간호학과와 간호학과가 아닌 일반학과에서 2012년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25일간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간호대학생군 180부, 일반대학생군 210부로 총 39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모두 회수되었으나, 이 중 설문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아 분석에 사용하기 곤란한 간호대학생군 5부, 일반대학생군 3부를 제외하여 간호대학생군 175부, 일반대학생군 207부로 총 382부를 사용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설문작성 전에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로부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하였고, 참여자들의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후에 폐기할 것임을 알려 주었다.

2.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 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존중의식, 지각된 윤리가치관, 지각된 생명의료윤리지식, 성지식, 성태도와 자녀관 등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와 t-test를 이용하였다.
- 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존중의식, 지각된 윤리가치관, 지각된 생명의료

윤리지식, 성지식, 성태도와 자녀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Table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82)

Variables	Categories	Nursing students	General students	χ^2	p
		(n=175)	(n=207)		
		n(%)	n(%)		
Gender	Male	15(8.6)	60(29.0)	25.05	<.001***
	Female	160(91.4)	147(71.0)		
Age (yr)	19~20	21(12.0)	60(29.0)	17.60	.001**
	21~22	77(44.0)	74(35.7)		
	23~24	56(32.0)	47(22.7)		
	≥25	21(12.0)	26(12.6)		
	M±SD	22.66±3.12	22.07±2.58		
Grade	Freshman	2(1.1)	69(33.3)	79.49	<.001***
	Sophomore	86(49.1)	63(30.4)		
	Junior	58(33.1)	28(13.5)		
	Senior	28(16.0)	46(22.2)		
Number of sibling	1	7(4.0)	11(5.3)	3.16	.531
	2	127(72.6)	139(67.1)		
	3	30(17.1)	36(17.4)		
	4	7(4.0)	16(7.7)		
	over	3(1.7)	5(2.4)		
Economic status	good	2(1.1)	5(2.4)	2.55	.637
	upper-intermediate	42(24.0)	51(24.6)		
	fair	104(59.4)	110(53.1)		
	low-intermediate	23(13.1)	35(16.9)		
	poor	4(2.3)	6(2.9)		
Religion	None	83(47.4)	118(57.0)	6.88	.142
	Protestant	47(26.9)	45(21.7)		
	Buddhist	16(9.1)	19(9.2)		
	Catholic	29(16.6)	22(10.6)		
	Others	0(0)	2(1.0)		
Thoughts on giving birth	must give birth	81(46.3)	103(49.8)	4.35	.500
	It dose not matter	90(51.4)	97(46.9)		
	must not give birth	2(1.1)	5(2.4)		
	etc.	1(0.6)	2(1.0)		

*p<.05 **p<.01 ***p<.001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 비율이 간호대학생은 91.4%, 일반대학생은 71.0%로 여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 분포를 보면 21~22세가 간호대학생은 44.0%, 일반대학생은 35.7%로 각각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간호대학생 22.66±3.12세, 일반대학생이 22.07±2.58세였다.

학년분포를 보면 간호대학생은 2학년이 49.1%, 일반대학생은 1학년이 33.3%로 가장 많았다. 형제수(본인포함)는 2명이 가장 많아 간호대학생은 72.6%, 일반대학생은 67.1%였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중정도가 가장 많아 간호대학생은 59.4%, 일반대학생은 53.1%였다. 종교의 경우 '없음'이 간호대학생은 47.4%, 일반대학생은 57.0%로 가장 많았다. 자녀출산에 대한 생각은 간호대학생은 '낳아도, 낳지 않아도 된다'가 51.4%, 일반대학생은 '반드시 낳아야 한다'가 49.8%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chi^2=25.05, p<.001$), 연령($\chi^2=17.60, p=.001$) 및 학년($\chi^2=79.49, p<.001$)은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3.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제 변인 정도 비교

<Table 2> The Comparison of Variables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N=382)

Variables	Range	Nursing students (n=175)	General students (n=207)	t	p
		M±SD	M±S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1-4	3.04±0.35	3.12±0.32	-2.14	.033*
Life-respect consciousness	1-5	3.89±0.42	3.84±0.46	1.05	.293
Perceived ethical values	1-4	2.49±0.64	2.79±0.73	-4.10	<.001***
Perceived biomedical ethics knowledge	1-4	2.95±0.41	2.53±0.60	7.94	<.001***
Sexual knowledge	0-25	17.80±3.48	14.74±4.51	7.47	<.001***
Sexual attitude	1-5	2.96±0.55	2.97±0.52	-0.11	.907
Value regarding child rearing	1-5	3.35±0.42	3.40±0.40	-1.06	.289

*p<.05 **p<.01 ***p<.001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존중의식, 지각된 윤리가치관, 지각된 생명의료윤리지식, 성지식, 성태도, 자녀관을 비교한 결과,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평균평점이 4점 만점에 간

호대학생이 3.04±0.35점, 일반대학생이 3.12±0.32점으로, 두 군 모두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간호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14, p=.033$). 생명존중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3.89±0.42점, 일반대학생이 3.84±0.46점으로, 두 군 모두 생명존중의식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식이 일반대학생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05, p=.293$). 지각된 윤리가치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평균평점이 4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2.49±0.64점, 일반대학생이 2.79±0.73점으로, 두군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일반대학생이 간호대학생보다 지각된 윤리가치관이 유의하게 높았다($t=-4.10, p<.001$). 지각된 생명의료윤리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평균평점이 4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2.95±0.41점, 일반대학생이 2.53±0.60점으로, 두 군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생명의료윤리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t=7.94, p<.001$).

성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17.80±3.48점, 일반대학생이 14.74±4.51점으로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성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t=7.47, p<.001$). 성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2.96±0.55점, 일반대학생이 2.97±0.52점으로 두 군 모두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11, p=.907$). 자녀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3.35±0.42점, 일반대학생이 3.40±0.40점으로 두군 모두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06, p=.289$)<Table 2>.

3.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제 변인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생명존중의식, 지각된 윤리가치관, 지각된 생명의료윤리지식, 성지식, 성태도 및 자녀관 간의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생명의료윤리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인은 간호대학생에서는 생명존중의식($r=.266, p<.001$), 지각된 윤리가치관($r=.258, p=.001$), 성태도($r=.225, p=.003$) 및 자녀관($r=.228, p=.002$)이었으며, 일반대학생에서는 생명존중의식($r=.233, p=.001$), 성태도

($r=.277, p<.001$) 및 자녀관($r=.226, p=.001$)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The Relation of Variables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N=382)

Variables	Nursing students (n=175)		General students (n=207)	
	r	p	r	p
Life-respect consciousness	.266	<.001**	.233	.001**
Perceived ethical values	.258	.001**	.135	.053
Perceived biomedical ethics knowledge	.105	.168	.092	.186
Sexual knowledge	.076	.316	.018	.802
Sexual attitude	.225	.003**	.277	<.001***
Value regarding child rearing	.228	.002**	.226	.001**

* $p<.05$ ** $p<.01$ *** $p<.001$

3.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회귀모형의 적합도인 F값은 5.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R²값은 .17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측정변인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설명력이 17.4%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β값을 살펴본 결과 생명존중의식($\beta=.19, p=.002$), 지각된 윤리가치관($\beta=.09, p=.017$)으로 나타나 생명존중의식이 높을수록, 지각된 윤리가치관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생명존중의식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회귀모형의 적합도인 F값은 7.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R²값은 .190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측정변인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설명력이 19.0%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β값을 살펴본 결과 생명존중의식($\beta=.19, p<.001$), 성태도($\beta=.15, p<.001$), 자녀관($\beta=.13, p=.017$)으

로 나타나 생명존중의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자녀 중심적 의식이 높을수록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생명존중의식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Predicting Variables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Variables	Nursing students (n=175)					General students (n=207)						
	B	SE	t	p	R ²	F	B	SE	t	p	R ²	F
Constants	1.30	.33	3.94	.000			1.24	.28	4.35	.000		
Life-respect consciousness	.19	.06	3.11	.002	.174	5.90***	.19	.04	4.32	<.001	.19	7.80***
Perceived ethical values	.09	.04	2.41	.017			.03	.02	1.16	.247		
Perceived biomedical ethics knowledge	.02	.06	.42	.671			.03	.03	.86	.390		
Sexual knowledge	.00	.00	.18	.853			.00	.00	.53	.592		
Sexual attitude	.09	.04	1.94	.053			.15	.04	3.54	<.001		
Value regarding child rearing	.10	.06	1.69	.092			.13	.05	2.41	.017		

*** $p<.001$

일련의 회귀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가 모두 0.1 이상이고 변량중폭요인(VIF)값이 모두 10이하이므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잔차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1.703 과 2.033으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된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한 결과 평균평점 4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3.04점, 일반대학생은 3.12점으로, 두 군 모두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대학생이 간호대학생보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도구이지만, Jeon [10]의 연구에 따르면,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을 비교한 결과 평균평점이 4점 만점에 간호대학생 2.94점, 비 간호대학생은 2.77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간호윤리과목 3학점을 이수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13]의 연구에서 평균평점이 4점 만점에 2.94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와 간호대학생보다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난 점은 선행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약 50%정도였던 차이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oon과 Jaung [28]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경험과 임상실습기간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경험과 생명의료윤리의식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 생명존중의식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3.89점, 일반대학생이 3.84점으로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두 군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여 비교분석이 어려우며, 선행연구들은 중학생 [19] 및 고등학생 [17]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Nam [19]의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 청소년들은 43.72점(점수 범위 12~60점)으로 생명존중의식을 보통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도구이지만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hin [17]의 연구에서 생명존중의식을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 환경에 대한 존중의식으로 평가하였는데, 총점 77.76점(점수 범위 20~100점),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 40.74점

(점수 범위 10~50점), 환경에 대한 존중의식 37.10점(점수 범위 10~50점)으로 청소년들은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생명존중의식이 모두 보통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생명존중의식 정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생명존중의식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의식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 [17]의 연구에서 생명존중의식과 생명의료윤리의식간의 관계를 평가한 결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대해 외경과 존엄을 인정하는 생명존중의식의 함양은 [16] 특히 미래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전체 대학생의 생명존중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대학생의 생명존중의식 정도 및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생명존중의식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비교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이에 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지각된 윤리가치관의 경우 본 연구결과 평균 평점 4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은 2.49점, 일반대학생은 2.79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윤리 가치관을 지각하고 있었고, 일반대학생이 간호대학생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른 도구이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생명, 대상자관계, 간호업무관계, 협동자 관계 영역을 통한 윤리 가치관을 평가한 Lee, Kim과 Kim [29]의 연구에서 총점 88.03점(점수 범위 25~125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은 보통 이상의 윤리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윤리가치관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 [11]의 연구에서 윤리가치관은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현재까지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보통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윤리가치관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윤리가치관은 대상자 스스로가 지각하는 윤리가치관의 신념 정도를 단일문항으로 평가한 것으로 향후 윤리가치관에 관해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도 많고, 최근에 윤리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윤리 가치관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난 점도 간호대학생에게 제공되고 있는 윤리교육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윤리가치관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Kwon [9]의 연구에 따르면 매우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진 간호대학생이 가끔 흔들리는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가치관을 가진 대상자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윤리적 가치관은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리가치관과 생명의료윤리의식간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윤리가치관을 확립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에게 총 12차(2시간/차수)에 걸친 간호윤리교육을 시행한 Yoo와 Shon [3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호윤리교육을 시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윤리교과목의 학점 비중을 높이고 학점과 병행한 다양한 매체활용 및 특강 등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윤리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성태도의 경우 본 연구 결과 평균 평점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은 2.96점, 일반대학생은 2.97점으로 두 군 모두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성태도가 개방적인 성향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약간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 일반대학생의 성태도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여대생과 일

반여대생의 성태도를 조사한 Lee와 Lee [31]의 연구에 따르면, 50점 만점에 간호여대생 25.64점, 일반여대생 26.55점으로 두 군 모두 보통 정도로 나타나 성에 관해 개방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보다는 중립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대학생들의 성태도는 중립적 혹은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성태도와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비교 고찰한 연구들이 부족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성관계 경험은 개방적 성태도 [24, 25], 낙태 허용도 [24]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성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욱 성태도가 개방적이며 성경험을 통해 인공임신중절과 같은 대상자가 원치 않은 결과나 행동을 유발시킨다. Park, Kim과 Gwan [32]의 남자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성적 자기주장은 피임 자기효능감,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개방적인 성태도와 행동으로 초래될 생명의료윤리문제의 부정적 결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피임법을 포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성지식 제공, 올바른 대처방법 등 다양한 예방 전략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녀관의 경우 본 연구 결과 평균 평점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은 3.35점, 일반대학생은 3.40점으로 두 군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자녀 중심적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자녀관은 일반대학생의 자녀 중심적 의식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생명의료윤리와 자녀관 간의 관련성에 관한 정보가 없어 비교 분석이 어렵다. 유사한 연구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기대하는 만족감과 부담감에 관한 자녀 가치관을 조사한 Kim과 Song [33]의 연구에서 평균 평점 4점 만점에 남자대학생 2.95점, 여자대학생 2.74점으로, 대학생의 자녀 가치관은 보통 이상의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 가치관이 자녀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예비 부모인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결혼관과 자녀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생

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로 생명존중의식이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존중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중재 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한 연구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표본 이상으로 일반화하거나 확대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평균평점 4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3.04점, 일반대학생은 3.12점으로, 두 군 모두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대학생이 간호대학생보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대학생은 생명존중의식이 높을수록, 지각된 윤리가치관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생은 생명존중의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자녀 중심적 의식이 높을수록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두 군 모두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생명존중의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두 군 모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로 생명존중의식이 나타났으므로, 대학생의 생명존중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미래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윤리가치관을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윤리교육과목의 학점 비중을 높이고 학점과 병행한 다양한 매체활용 및 특강 등을 통해 윤리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바람직한 성태도의 확립이 필요하며, 성

개방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다양한 성지식, 자유로운 성태도 및 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결과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올바른 대처방법 등 다양한 예방 전략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녀관의 확립이 필요하며, 예비 부모인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결혼관과 자녀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Gachon University in 2016.

REFERENCES

- [1] K. H. Hahm, and I. Lee, "Biomedical ethics policy in Korea: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 Vol. 27, pp. S76-S81, 2012.
- [2] S. Gorovitz, "Bio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Monist*, Vol. 60, No. 1, pp. 3-15, 1977.
- [3] S. Y. Hong, "Bioethics and anthropology."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Vol. 7, No. 2, pp. 217-231, 2004.
- [4] Y. S. Ko, "Category and solution plan of bioethics facing in medical field."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Vol. 79, S509, 2010.
- [5] B. H. Kong, "Biomedical ethics and Nursing."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Vol. 5, No. 1, pp. 79-88, 2001.
- [6] J. H. Park, Y. S. Kim, & W. O. Kim,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Vol. 12, No. 3, pp. 251-260, 2009.
- [7] A. Akabayashi and B. T. Slingsby, "Biomedical ethics in Japan: the second stage."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Vol. 12, No. 3, pp.

- 261-264, 2003.
- [8] R. S. Görgülü and L. Dinç, "Ethics in Turkish nursing education programs." *Nursing Ethics*, Vol. 14, No. 6, pp. 741-752, 2007.
- [9] Y. Kwon,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3, No. 2, pp. 262-272, 2009.
- [10] H. S. Je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8, No. 3, pp. 401-410, 2011.
- [11] M. K. Cho,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4, pp. 311-320, 2013.
- [12] H. Y. Ahn, B. S. Cho, S. H. Choi, W. Choi, & Y. M. Go, "Bioethical percep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of medica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98-107, 2008.
- [13] Wha Young Choi,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regarding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p.1-27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2.
- [14] M. Lim, C. Park,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423-4431, 2014.
- [15] G. S. Jeong, "The effect of gender, ethic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students in one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672-5681, 2013.
- [16] S. H. Lee, Y. Y. Kim, S. H. Ha, S. K. Oh, J. I. Lee, "A study on the life-respect consciousness of adolescent." Samsung Life Public Welfare Foundation Social Mental Health Institute. pp. 1-134, 2004.
- [17] Soon Gi Shin, "Sexual knowledge, life protection consciousness and bioethical consciousness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p.1-40, Ajou University, 2006.
- [18] Gyu Sook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non health care professionals." master's thesis, p.1-62, KyungHee University, 2002.
- [19] Min Sun Nam, "The effects of suicide preventive program for adolescent of their life-esteem, attitude toward suicide and suicidal risk." master's thesis, p.1-56, Ewha Womans University, 2011.
- [20] H. J. Jong, H. J. Moon, "A study of ethical sense of value and discord of the clinical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 No. 2, pp. 349-371, 1995.
- [21] Bo Ram Choi, "A study on the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of the paramedic students." master's thesis, p.1-71,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0.
- [22] Seol-Hee Kim, "A study on the primary school teachers' attitude and behavior about the sex education - Tae Jeon Area -". master's thesis, p.1-74,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991.
- [23] Ji-Won Moon, "A study on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among various university groups for sex education program." master's thesis, p.1-59, Ewha Womans University, 1999.
- [24] Sunmin H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p.1-46, Hanyang University, 2009.
- [25] Eun Ju Heo,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 social maturity variables and sexual attitude, knowledge in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p. 1-140, Inha University, 2004.
- [26] Woo Hyun Park, "The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birth will." master's thesis, p.1-111, Chosun University, 2011.
- [27] S. Park, E. J. Oh, K. N. Park, H. A. Mun, "A study on policy tasks to deal with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ssues : A Study on future generation youth's family and employment cultu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cooperative study 2006-01-4). Seoul, Korea, 2006.

- [28] M. Moon, A. Jaung, "Correlation between the nursing practice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 13, No. 2, pp. 49-62, 2012.
- [29] S. H. Lee, S. Y. Kim, J. A. Kim,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 2, pp. 145-155, 2007.
- [30] M. S. Yoo, K. C. Shon,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 12, No. 2, pp. 61-76, 2011.
- [31] J. S. Lee, G. E. Lee, "Knowledge, attitudes, experiences in sex and needs for sex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16, No. 2, pp. 45-55, 2003.
- [32] J. S. Park, B. M. Kim, Y. E. Gwan, "Influence of psycho-social maturity and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on sexual assertiveness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9, pp. 461-470, 2016.
- [33] M. Y. Kim, Y. Song,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03-311. 2012.

이 금 재(Lee, Keum-Jae)



- 198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2001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생명윤리
- E-Mail : leekj4435@gachon.ac.kr

이 에 리 자(Lee, Eliza)



- 200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후과정연구원
- 2013년 3월 ~ 현재 : 서일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수면, 노인, 생명윤리, 간호사
- E-Mail : elizalee@seoil.ac.kr

박 연 숙(Park, Yeon-Suk)



- 1988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간호교육석사)
- 1999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만성질환자 간호
- E-Mail : yspark@kongju.ac.kr